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5.4~2015.5.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헤인	수오서재	6	약사유리광찰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2	어떻게 살 것인가(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	박원자 나무물상사	7	연기법으로읽는불교	목경찬	불광출판사
3	월호스님의 화엄경약간계 강설	설호	(주)조계종출판사	8	해초스님의 아미타경 강설	해초	(주)조계종출판사
4	실전(법정이문고성철이답하다)	성철	법정, 원택	9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5	법륜스님의법문 행복해지고싶다면길들여주세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10	능엄경 대의풀이	남희근/송천은	마하연



## 직관과 통찰 가득한 선어의 세계 담아

### 선시감상사전 전 2권

석지현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3만8천원, 5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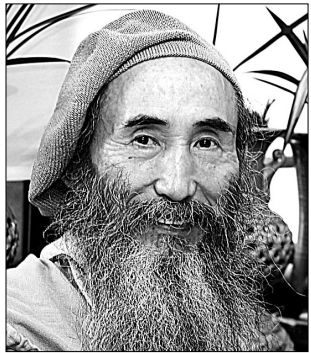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 '선시'라는 장르를 처음 알린 석지현 시인 스님(사진)이 옮기고 해설한 <선시감상사전>이 20년 만에 재출간돼 화제다. 한국판과 중국·일본판 등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명문(名文)으로 알려진 한·중·일 선자(禪者)와 시인(詩人) 306명의 작품 1,431편(한국 107명 997편, 중국 169명 260편, 일본 30명 174편)이 국가·연대·작가별로 정리돼 있다. 작가 소개를 통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살피고, 작가별·원제별 찾아보기를 덧붙여 시사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에는 깨달음을 노래하면서도 문자의 미혹서 벗어나려 한 선승들의 오도(悟道) 세계, 존재와 세계에 대한 직관과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시인들의 언어 세계가 담겨져 있다. 선승들이 느낀 깨달음의 희열을 노래하는 시, 겸허한 침묵 속에서 우리나라 생활의 서정을 노래한 선시들은 물론, 선적이고 명상적 분위기가 풍기는 시, 각 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선시들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깨달음을 선사한다.

이 책의 편자 석지현 시인은 특유의 감각적 시선으로 방대한 작품을 자신만의 색채로 새롭게 읽어냈다. 각 편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저자의 각주와 해설에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선시감상사전>은 한마디로 불교에 관심 가진 이들은 물론 깨달음의 희열을 느껴보고자 하는 이들, 차분히 시적 감흥에 취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념비적 대작본이다.

저자는 "선시(禪詩)를 펴낸 지 어언 22년이 지났다. 그 동안 나의 정신적 편력은 불교에서 탄트라 감각의 세계로, 라즈니쉬로, 구약과 신약의 세계로, 힌두 명상의 세계로 끝없이 이어졌다. 이제 그 방향은 가장 겸허한 하나의 인간으로,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대강 그 윤곽이 잡



혀가고 있다"며 "이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는 이 동굴의 침묵 속에서, 나는 22년 전으로 되돌아가 내 영혼을 차갑게 울리던 그 감성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 기존의 책 <선시(禪詩)>를 기초로 내 일생서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인 <선시감상사전>을 계획하기에 이른 것이다. 작업이 워낙 방대하고 힘든 일이라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일에 매달리기를 4년, 몇 번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작업을 마무리하기에 이르렀다"고 머리말을 통해 심정을 고백한다.

### 선시 감상 최고 안내서 20년 만에 韓中日 선자와 306명 작품 소개

<선시감상사전>을 펴내면서 저자는 스스로 겸허한 한 인간으로 되돌아 왔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차갑게 울린 감성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고 말한다. 불교, 힌두교, 밀교, 기독교 등 국경과 종교를 넘나들던 그의 정신적 편력, 그 귀결점은 바로 선(禪)이었다.

석지현 시인은 <선시감상사전>을 펴낸 후 <벽암록(전5권, 2007년), <중용록(전5권, 2015년)>을 차례로 펴냈다. 모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그는 이 땅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선(禪)을 알리고, 선시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소진했다. 선어(禪語) 번역에 매달리는 몇 십 년 동안 시인의 구도 여행은 계속된 것이다. 언어를 매개로 시공을 가로질러 깨달은 선지식들을 만나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면서 그의 내공은 점점 더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선어의 정수를 담은 '사전'이, 삶에 대한 통찰로 가득 찬 '감상집'이 탄

생할 수 있었다. 석지현 시인은 이번 <선시감상사전>을 통해 선시를 읽는 것이 어떻게 곧 깨달음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우선 한국판 분량은 굉장히 방대하다. 저자가 한국 선의 원형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선승 일언이 지은 <삼국유사>에 실린 월명사와 총담의 향가, 순례기행문 <왕오천축국전>을 쓴 구법승 혜초의 시가 이어지고, 저술의 제자인 진각 해심의 시, 원감 총지, 백운 경한, 태고 보우, 나옹 해근 등의 선승들의 시뿐만 아니라, 고려 말 합허 득통의 시, 조선 시대 매월당 김시습, 허응 보우, 청허 휴경, 정관 일선, 사명 유정, 공안선시의 거장인 천명 인오, 기암 범견, 소오 태능, 중관 해안, 편양 언기, 조선 말기의 경허 성우의 시가 이어진다. 근래의 만해 한용운, 원광 경봉의 시도 실렸다. 경봉 스님의 시는 옛 선승들의 도인풍을 보여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승이다.

중국판에는 중국 선문을 이은 대통 신수, 육조 혜능, 조주 종신, 선월 관후, 포대 화상, 설두 중현, 천동 정각, 야보 도천 등의 선승들의 시가 실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선시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당대의 시성들, 즉 왕유, 이백, 전기, 백거이, 유종원, 소동파 등이 쓴 주옥같은 시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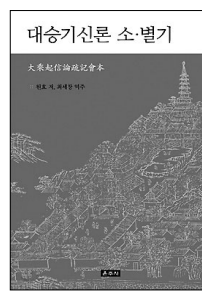
일본 선시는 섬세하면서도 과격적이다. 존엄한 선승의 세계를 노래하는 동시에 성적인 희열을 노골적으로 읊은 일후 준손의 시는 선문의 금기를 깨는 과격적 시세계를 보여준다. 하이쿠의 거장 슌미 파초의 시는 인간 본연의 고적감이 짙게 깔려 있다.

그 외에도 이 책에는 모두 1,431편의 선시가 국가·연대·작가별로 나누어 담겨 있다. 작품은 작품성 위주로 선정됐다. 수록된 각 개인의 배열순서는 모두 출생연대 순이다. 출생연대가 분명치 않은 경우는 전후 사정을 참작하거나, <연대미상>편에 별도로 묶여 있다. 석지현 시인은 시제(詩題)만 보아도 어떤 시정을 노래하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쉬운 제목을 달아 놓았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한글세대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 부록에 있는 <작가소개>는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해당 작자와 작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자와 원제(原題)별로 나누어 찾아보기를 실었다. 김주윌 기자

## 쉽게 풀어쓴 대승불교 핵심 교과서

### 대승기신론 소·별기

원효 지음 | 최세창 역주 | 운주사 펴냄 | 3만 원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정수를 간결히 정리한 대승불교의 기본 교과서이다. 수많은 주석서 중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 소·별기>가 가장 탁월해 예로부터 중국과 일본서 <해동소>라 별칭으로 존송받아 왔다. 이번 역주본은 <기신론>과 <기신론 소·별기>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를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대승의 정수와 원효의 사상을 만날 수 있게 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라는 뜻으로, 대승은 중생의 마음인 중생심을 말하며, 그 중생은 각자의 '자기 자신'을 뜻한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라는 의미이다. <기신론>은 글이 간결해 읽기는 좋으나 그 뜻이 심오해 이해하기는 무척 어렵다. 짧은 글 속에 대승법체의 정수를 모두 담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백 가지 경전서 불법의 엑기스만 가려 뽑아 대승법체의 눈을 논리화, 체계화해 회통(會通)시킨 대승불교의 핵심 교과서인 셈이다. 그러기에 경전이 아닌 논서임에도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필수 교재로 존송 받아온 것이다.

역대로 정영해원, 현수법장, 원효대사의 주석서를 '기신론 삼대소'라 한다. 그 중에서 원효의 주석서는 한국은 물론 중국서도 <기신론> 공부의 기본 문헌으로 삼았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해동소>라는 별칭으로 통하는 유명한 저술이다. 뿐만 아니라 화엄종의 창시자이자 중국서 가장 널리 읽히는 주석서인 <대승기신론의기>를 쓴 현수법장은 원효의 <해동소> 내용을 대거 인용해 자신의 논지를 전개시킨다.

원효의 <기신론 소·별기>에 담긴 사상이나 교판은 논쟁이나 종파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법문의 화쟁(和諍)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종파를 초월해 일심(一心)의 원인으로 융회(融會)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 설명과 화쟁사상이 <기신론 소·별기>안에 명쾌히 들어 있으니,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에서 이보다 위대한 사상은 없었다고 할 정도이다.

이 책은 이런 <기신론 소·별기>를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1,100개가 넘는 주석을 달아, 불교 전공자는 물론 원효사상에 입문하는 독자들도 용어나 개념서 오는 어려움을 없이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지 금껏 나온 어떤 번역서보다 쉽고 상세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원효 스님의 <기신론 소·별기>는 이미 시종에 몇 권 나와 있다. 하지만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전체

###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 제시 한문원문과 한글 번역본 비교 가능

를 압축한 대의인 서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본문에 등장하는 어려운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등의 문제들도 있다. 특히 원효 스님의 서부분은 <대승기신론 소·별기> 전체를 압축하면서도, 다양한 경론을 인용함으로써 일심(一心)으로의 회통(會通)을 시도하는 명문 중의 명문이며, 원효 사상의 특징이랄 수 있는 화쟁사상을 정교하고 활연한 교학적 논리로 밝히고 있어서 자체만으로도 소(疏) 전체를 가름하는 하나의 작은 논(論)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독자들 중의 창시자이자 중국서 가장 널리 읽히는 주석서인 <대승기신론의기>를 쓴 현수법장은 원효의 <해동소> 내용을 대거 인용해 자신의 논지를 전개시킨다.

<기신론>과 <소·별기>를 누구나 쉽게, 그러면서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한편 이 책은 우리말에 번역 근거가 되는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문을 서로 비교해가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문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여 독자들 스스로 한문구조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의미를 하여 자기 견해를 갖도록 배려했다. <기신론> 본문에 대해서는 번역자의 오랜 수행경험과 독서를 바탕으로 한문본을 보지 않고서도 전체 내용이 숙지되도록 한글 번역본을 바탕으로 방대한 주석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딪치는 개념과 의미 이해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소·별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석을 지체했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석을 달았다. 이는 <기신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들 스스로 <소·별기>를 주제적으로 사유해 소화하도록 하려는 배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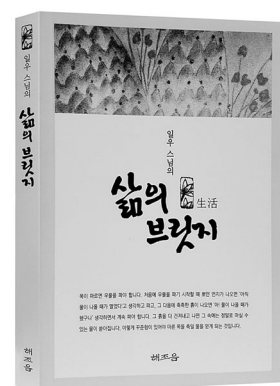
한국불교서 원효대사의 위상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다. 그리고 원효대사가 위대하다고 평가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대승기신론 소·별기>서 기인한다 그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하여 그동안 한국불교계에서는 <소·별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번역본도 몇 차례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이나 책들은 원효의 사상을 이해하고 싶은 일반 불교신자나 일반 독자들에게 너무 무겁고 어렵게 다가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축적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고, 어려운 개념들에 대한 자세한 주석과 함께 본문을 원문과 직접 대조해 번역 문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이 책은, <대승기신론>에 대한 정확하고 쉬운 이해와 <대승기신론 소·별기>에 담긴 원효의 문장과 사상을 직접 접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시원한 감동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윌 기자 kimji4217@hyunbul.com

## 법화경으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만나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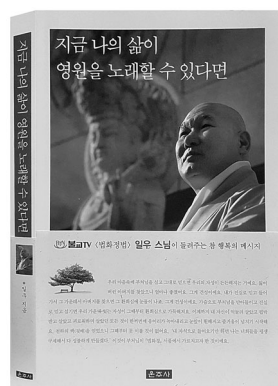
# BTN 인기법사 '효동 일우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지침



**삶의 브릿지**  
일우 지음 / 해조음 / 231쪽 / 값 13,000

믿음과 기도 실천으로 이루는 지혜와 복덕의 신해지침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상(無常)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언제나 이 대로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나의 삶이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면**  
일우 지음 / 도세출판 운주사 / 231쪽 / 값 15,000

법화정법, 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진수요 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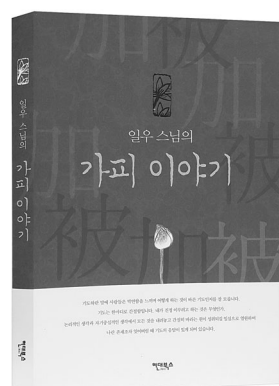
잘못된 습관과 업력, 이기주의로 돌풍 몰쳐 있던 응어리를 풀고 그 자리에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에 닿을 수 있고, 궁극에는 부처님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일우 지음 / 도세출판 운주사 / 341쪽 / 값 15,000

법화 신행으로 이끌어주는 알기쉬운 법화경 강의

믿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끝없는 무시무종(無始無終), 중생의 가련한 윤회에서 처음과 끝에 방점을 찍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가피이야기**  
일우 지음 / 현대북스 / 231쪽 / 값 13,000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경책이 담긴 소참

내 작은 삶 속에서 감사함을 모르면 어디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원천이요, 미래 희망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3관세음보살님 친견하는 절  
**대구 성관음사**  
대구 남구 양지로 95  
☎ 053)655-3380  
매월 초하루 보름 관음재일법회 봉행합니다